

충청남도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결과

1 개 요

- 일 시 : 2014년 2월 27일(목) 16:00~18:00
- 장 소 : 한국철도공사 본사 회의실(민들레)
- 참 석 : 7명¹⁾(발제자 및 토론자,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자 등)
- 주 제 : 국내외 물산업 동향 및 국내 물산업 정책 선진사례 발표
- 주최·주관 : 충남발전연구원
- 진행흐름

개 회 식

⇒

주제발표

⇒

종합토론

⇒

정리

2 주제발표

발표 1 : 국내·외 물산업 동향

■ 이원태(금오공과대학교 교수)

- 물산업의 개요 - 물산업의 정의 및 범주
- 국내·외 물산업 동향 - 국내외 물산업 시장비교 및 성장전망
- 물산업 육성전략 - 경상북도의 물산업 추진전략 사례

1) 전문가 워크숍에는 이원태(금오공과대학교 교수, 주제발표), 조영무(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, 주제발표), 허재영(대전대학교 교수, 토론), 이두진(K-water연구원 책임연구원, 토론), 이상진(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, 토론), 김영일(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, 토론), 정우혁(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) 등이 참석하였음

발표 2 : 경기도 물산업 육성방안

■ 조영무(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)

- 물산업 육성의 필요성
- 국내·외 물산업 현황 - 해외(OECD, 미국 유럽 등), 국내현황 분석
- 경기도 물산업 인프라 분석 - 경기도 물산업 현황 및 분석
- 물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역할 - 실증화지원사업, 물산업 클러스터, 물산업 협의체 구성 등

3 종합토론

1. 허재영(대전대학교 교수)

- 물산업의 범위(정의)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
 - 특히, 물산업의 의미가 민영화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
- 공공재로서 물과 기타의 물은 구분되어야 하며, 수처리기술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함
 - 공공재 성격의 물 가운데 잉여수량의 물을 경제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함
- 해수담수화 측면에서 물산업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수담수화 또는 심층수(기능성 물)의 물산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
- 통합하천관리 및 수생태계 복원기술의 물산업화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충남의 물산업 시장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

2. 이두진(K-water연구원 책임연구원)

- 물산업이 대기업 건설회사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외시장 진출분야도 건설, 운영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,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과 경험을 고려하여 강점이 있는 사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
- 물산업 중 특히, 상하수도 분야는 소재, 부품, 소프트웨어 등 장치산업과 관련된 원천 요소기술이 매우 중요하고, 독일이나 일본의 유수회사에서 전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펌프나, 밸브, 계측기기 등의 강소기업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첨단 막소재, 초순수 플랜트 부품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
- 최근 각 지자체별로 물산업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대부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, 실증플랜트,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
- 충청남도 차원에서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밀착되어 있는 이슈를 발굴하고, 이를 중심으로 기업유치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충청남도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금강유역의 물문제 및 서해안 연안개발과 연계한 물 이슈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

3. 기타 의견

- 물산업을 너무 공공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
- 충청남도 차원의 물산업 현황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
 - 물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
- 물산업과 연관된 부품 및 소재 중심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육성 부분이 필요